

이혼 가정 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혼가정의 중학생 자녀가 부모의 이혼 사건에 대하여 지각하는 유기공포 및 상실감과 그들의 불안 및 우울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혼가정 중학생 총 170명(남 84 여 86)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혼가정 유형과 성별에 따라 지각된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및 우울 수준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기공포 수준은 이혼가정 유형(편모, 편부, 친모계부, 계모친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편부집단의 유기공포 수준이 다른 집단들의 유기공포 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우울 증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불안과 우울 수준 모두가 높았다. 유기공포 및 상실 지각이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기공포와 상실지각은 불안과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공포는 불안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상실지각과 유기공포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혼가정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이혼가정 자녀,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우울

[†] 본 논문의 일부 자료는 정연옥과 이민규(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연옥, 경기도 영통구 원천동 산 5 울곡관 368-5, Fax : 031-219-2195, E-mail : yoc141@ajou.ac.kr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 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3.5였고(통계청, 2004),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3위에 해당되었다(한겨레, 2005). 통계청(2003)자료에 따르면, 이혼당시 1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한명이상 두고 있는 경우는 이혼가정의 약 68.3%에 이른다. 그 해 신고된 이혼건수(167096건)와 이혼당시 보고된 자녀의 명수를 고려하면(자녀 1명: 47835건, 자녀 2명: 58349건, 자녀 3명이상: 8099건), 약 13만 3736명의 자녀가 새롭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중대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며,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자녀의 심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McMahon, Grant, Compas, Thurm, & Ey, 2003). 이론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발달정신병리 모델들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아동 및 청소년의 내현화 및 외현화 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Cicchetti & Toth, 1991, 1997; Haggerty, Sherrod, Garmezy, & Rutter, 1994; Rutter, 1989). 따라서 부모의 이혼과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정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문제가 된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정의 역경, 빈곤, 및 폭력 등과 같은 불우한 환경에 처하면 많은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나타낸다(Children's defense fund, 1999; Achenbach, Dumenci, & Rescorla, 2002;

Achenbach & Howell, 1993). 따라서 실제적 측면에서 부모의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들의 적응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Compas, 1995; Rutter, 1990).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 이혼의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특정한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혼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연구자는 심리적 결과변인을 포괄적인 범주인 내현화, 외현화 증후군으로 측정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측정한다. 일련의 연구자들(Hetherington, 1993; Simons & Beamean, 1996)은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결과를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측정하여, 이혼가정 자녀들이 비이혼가정 자녀들에 비해서 두 배 가량 높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endall 등(1992)은 부적응을 포괄적인 범주로 측정하면, 그 연구 결과를 치료적 개입에 적용할 때 제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치료적 개입시, 이혼가정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개별적 증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내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개입을 한다면, 그 치료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결과변인을 측정할 때 개별 증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정신장애를 분류할 때, 불안과 우울 증상은 개별적인 구성개념을 지닌 두 개의 실체로 간주된다(Brady & Kendall, 1992). Clark(1990)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는 각기 다른 정동적, 인지적, 행동적, 및 생리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 불안은 전형적으로 위협 및 유해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인지를 핵심으로 한다. 한편, 우울의 핵심 인지는 상실과 실패이다(Beck, Brown, Steer, Eidelson, & Riskind, 1987).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불안의 핵심 정서는 공포이고(Blumberg & Izard, 1986), 우울의 핵심 정서는 슬픔이다(Brady & Kendall, 1992). 이와 같이 불안과 우울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혼과 같은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결과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그 증상의 인지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치료적 시사점을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Brown(1989)은 스트레스 사건과 심리적 장애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정서적 요인이 심리적 장애의 유형을 매개한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부모 이혼에 대하여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그들의 불안, 우울, 및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inaly-Jones와 Brown(1981)은 우울 증상 발생에 상실사건이 선행하고, 불안 증상 발생에 위협사건이 선행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Sandler Reynolds, Kliewer와 Ramirez(1992)은 부모 사별가정, 부모 이혼가정, 및 비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실사건과 갈등사건이 각기 우울 증상과 품행장애를 예측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 사별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부모의 상실을 의미하는 분리사건은 우울증상과 관련되었고, 갈등사건은 품행장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집단에서는 갈등사건과 우울증상간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리사건과 품행장애간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집단의 결과에 대하여, Sandler 등(1992)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부모 이혼이 그들에게 상실 사건인지 또는 갈등사건인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련의 평가자들이 참가자들의 상실사건 또는 갈등사건의 존재 여부를 평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문제점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부모간 갈등사건일 수도 있고 한쪽 부모를 상실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Sandler 등(1992)은 추후연구에서 이혼가정의 자녀가 직접 부모 이혼 사건의 속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서장애와 관련된 지각, 또는 인지적 내용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혼가정 자녀의 우울증상 및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의 연구자들(Palosaari & Aro, 1995; Palosaari, Aro, & Laippala, 1996)은 아동기 부모 이혼의 경험과 성인초기 우울증상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면서, 부모의 이혼경험은 성인초기 우울증상 발생의 위험요인이라고 제안했다. 아동기 이혼경험과 우울증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것은 이혼이 주요한 상실사건이며, 슬픔과 우울은 상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Harvey와 Miller(1998)는 주요한 상실에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한 개인이 객관적으로 주요한 상실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혼가정 자녀와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객관적인 상실사건 발생 자체와 우울증상 간의 관련성을 탐

색하였다. 반면, 자녀가 부모 이혼의 사건에 대하여 지각하는 주관적인 상실정도를 직접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의 우울증상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Luecken 과 Applehans(2005)은 이혼가정 자녀의 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Luecken & Applehans, 2005) 사별가정, 이혼가정, 및 양친가정의 자녀에게 상실 관련 단서(예: 장례, 미망인 등)와 사회적 위협 단서(예: 실패자, 열등한 자 등)를 제시하여 주의적 편파가 나타나는 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양친가정 자녀들은 부정적 자극을 회피하여 부정적 자극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보호적 편파를 보였다. 그러나 이혼가정 자녀들은 상실관련 단서를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편파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주의적 특성과 그들의 정동장애 발생 위험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즉, 가족 해체로 인해 상실관련 도식이 형성된 사람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상실과 관련된 단서를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과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결과적으로 부적응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정동장애에 취약해질 수 있다(Luecken, & Applehans, 2005). 그러나 이들은 연구에서 우울 및 불안증상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적 특성과 우울 및 불안 증상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이혼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지각하는 상실과 우울증상을 각기 측정하여 그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혼가정 자녀들의 불안증상과 인지적 특성간

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urdek과 Berg(1987)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적응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지각을 6가지로 제안하였다; 자기 비난, 어머니 비난, 아버지 비난, 또래의 조롱 및 회피, 재결합 희망, 유기공포 등이다. 지각된 유기공포(fear of abandonment)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안정성과 생활의 연속성에 대하여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Baumeister 와 Leary (1995)는 유기공포를 개인이 돌봄을 받고 안정적인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위협당하는 상태로 가정하였다. 즉 이혼 가정 자녀의 경우 어느 한쪽 부모가 가정을 떠나면, 자녀는 떠난 부모와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장차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유기공포 지각은 특히 불안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Kurdek & Berg, 1987). 또한 Wolchick 등(2002)은 유기공포가 이혼스트레스 및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기공포의 매개역할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내현화 문제행동에서 더욱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연옥과 이민규(2006)의 연구에서 유기공포는 이혼스트레스가 우울/불안증상(내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공포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는 비행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척도)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정연옥, 이민규, 2006)에서 사용된 우울/불안척도는 우울과 불안을 개별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기공포에 대한 지각과 불안 증상간의 관계를 더 자세히 탐

색하기 위해서 불안 증상을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혼가정 자녀의 인지적 특성과 증상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 그들의 연령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mato와 Keith(1991)는 학령기 아동이 미취학연령의 아동에 비해서 부모 이혼 후 심리적 부적응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mery와 Forehand(1996)는 이혼 당시 아동의 연령과 연구수행 당시 아동의 연령이 혼재하기 때문에 부적응의 위험요인으로써 연령변인의 역할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혼가정 아동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은 그들의 인지능력, 발달과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이혼에 대한 상실 및 유기공포 지각과 우울 및 불안증상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한편, 이혼가정 자녀의 성별변인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결과들은 소년이 소녀보다 더 취약하다고 제안한다 (Atkeson, Forehand, & Rickard, 1982; Emery, 1982).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약 90%가량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SCCYF, 1989). 따라서 이혼가정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가정에서 살았다. 이러한 가정형태에서 소년들의 취약성에 대하여 남자의 역할모델인 아버지의 부재가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Downey와 Powell(1993)은 편부 및 편모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편부가정의 소년이 적응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국내의 경우 이혼가

정 유형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적응문제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유형, 즉 동거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들의 불안 및 우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요약하면, 부모 이혼이라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심리적 및 물리적 자원의 상실사건이며, 한 쪽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앞으로 버림을 받을 지도 모르는 유기공포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 당사자가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지각하는 유기공포와 상실은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 우울증상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각된 유기공포 수준은 불안증상과 상실지각은 우울증상과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적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 증상간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둘째, 이혼가정 유형과 성별에 따라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및 우울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개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령의 범위는 12세~15세로 한정하였으며, 연령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170명의 이혼가정 자녀(남=84 여=86)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

모 학력수준의 분포는 고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부: 고졸 55.3%, 대졸 28.8%, 중졸 10%, 대학원졸 4.1% 국졸 1.8%, 모: 고졸 68.8% 대졸 18.2%, 중졸 8.2% 대학원졸 2.4%, 국졸 2.4%). 이혼가정 유형을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편모주도가정(이하 편모집단), 편부주도가정(이하 편부집단), 친모계부가정(이하 친모계부집단), 계모친부가정(이하 계모친부집단)이다. 각 이혼가정 유형

별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이혼기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년수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가정 유형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및 평균이혼기간은 이혼가정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혼가정 유형의 분포비율을 그림 1에 도시화하였다.

표 1. 이혼가정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편모 (n=71)	편부 (n=48)	친모계부 (n=25)	계모친부 (n=26)
부 연령	43.65(3.60)	42.60(3.69)	41.36(3.33)	43.54(3.68)
모 연령	41.10(4.03)	39.65(3.66)	39.68(4.10)	39.42(5.13)
부 교육수준(년)	13.27(2.70)	12.73(2.78)	13.80(3.87)	13.04(3.24)
모 교육수준(년)	12.69(2.69)	12.21(2.54)	12.40(2.74)	13.12(2.05)
이혼기간	4.73(3.10)	4.73(3.48)	5.04(1.99)	5.46(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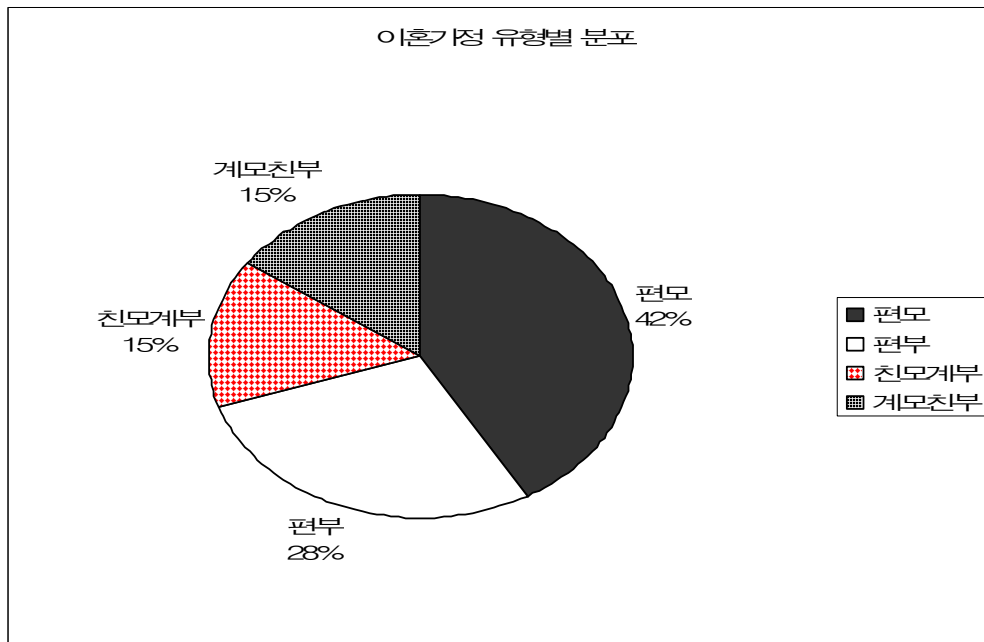


그림 1. 이혼가정 유형별 분포비율

그림 1을 보면 편모집단은 전체 이혼가정의 4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편부집단은 28%로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친모계 부 및 계모친부의 재혼가정 유형의 비율은 각각 15%씩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유기공포

지각된 유기공포는 Kurdek과 Berg(1987)가 제작한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신념 척도중의 하나의 하위척도인 유기 공포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Kurdek과 Berg(1987)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부모님들께서 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결코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나는 나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나는 부모님 없이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본 연구에서 구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70$ 이었다.

상실지각

Harvey(1996)는 상실을 유의미한 정서적 투입이 이루어진 자원의 감소로 정의하였다. 그 자원의 상실에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고 이혼가정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서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6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하여 상담심리전문가 1인, 임상박사 수료 1

인, 임상심리전문가 2인 등이 문항의 적절성을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모든 문항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를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정된 문항 중 평균 3점 이상을 받은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평정자들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intraclass correlation)을 한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는 $\alpha = .77$ 에 해당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4개의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슬프다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나를 속상하게 한다 나는 함께 살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님과 멀어졌음을 느낀다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75$ 이었다.

불안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표준화한 RCMAS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eynold & Richmond, 1978)를 사용하여 불안을 평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한다. 원래 검사는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9문항은 검사의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허구 척도(Lie scale)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구척도를 제외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는 $\alpha = .81$ 이었다.

우울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표준화한 아동 우울 질문지(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Kovac,

1985)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용 우울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 Kovac & Beck, 1977)를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는 만 8세에서 13세 아동에게 실시 가능하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 질문지이고, 아동의 가라앉은 기분, 우울, 염세적 경향, 실패 등을 측정한다. 응답자는 각 진술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그렇지 않다’, ‘가끔씩 그렇다’, ‘많이 그렇다’ 중의 하나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alpha = .85$ 이었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서 Windows 용 SPSS 11.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혼가정 유형(4:편모, 편부, 친모계부, 계모친부)과 성별(2: 남학생, 여학생)에 따른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및 우울점수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혼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즉 유기공포와 상실지각이 불안과 우울증상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결 과

이혼가정유형과 성별에 따른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및 우울수준의 차이

편모, 편부, 친모계부, 계모친부의 이혼가정유형과 성별에 따른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및 우울 점수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수행하였고, 사후 분석으로 LSD 검증(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혼가정 유형은 유기공포 점수에서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였다, $F(3, 166)=2.79, p<.05$. 사후 분석결과, 편부 집단은 편모 집단과 친모계부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유기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모친부 집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편부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유기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인은 불안과 우울

표 2. 이혼가정유형과 성별에 따른 주요측정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1. 편모 (n=71)		2. 편부 (n=48)		3.친모계부 (n=25)		4.계모친부 (n=26)		F값			
	남 (n=31)	여 (n=40)	남 (n=24)	여 (n=24)	남 (n=11)	여 (n=14)	남 (n=18)	여 (n=8)	가정 유형	성	가정유형 X성	사후 비교
유기 공포	.48 (.89)	.65 (.86)	.96 (1.2)	.99 (1.2)	.27 (.65)	.36 (.93)	.50 (.79)	.83 (.80)	2.79*	.87	.20	2/1, 2/3
상실 지각	9.13 (2.94)	8.30 (3.10)	8.96 (2.99)	9.58 (3.99)	8.36 (3.35)	9.29 (3.51)	9.56 (3.52)	9.50 (3.21)	.50	.08	.68	
불안	7.94 (5.04)	12.00 (6.69)	11.50 (7.80)	11.29 (6.38)	9.55 (5.61)	10.43 (4.65)	10.50 (6.52)	14.50 (7.56)	1.19	3.90*	1.30	
우울	16.32 (5.94)	19.33 (10.24)	17.79 (9.48)	20.42 (8.90)	16.91 (8.68)	18.36 (7.72)	15.78 (10.01)	22.38 (13.19)	.28	4.65*	.35	

* $p < .05$

점수 각각에 대하여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F(1, 168)=3.90, p<.05, F(1, 168)=4.65, p<.05$.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이혼가정유형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공포와 상실지각이 불안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성별변인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유기공포와 상실지각 및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지각된 유기공포와 불안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70)=.41, p <.01$, 유기공포와 우울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r(170)= .45, p <.01$. 상실지각은 불안과 우울과 각기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70)=.20, p <.05, r(170)=.18, p <.05$. 그러

나 유기공포와 상실지각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혼가정 자녀들이 지각하는 유기공포와 상실 이 불안 및 우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불안 증상에 대한 유기공포와 상실지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변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을 첫 번째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기공포 변인이 불안을 더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유기공포 변인을 두 번째 단계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상실지각 변인은 세 번째 단계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은 불안증상 총 변량의 2.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 변화량=4.452, $p<.05$. 2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불안증상 변량의 16.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변화량=33.973, $p<.001$.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전체 n=170)

변인	1	2	3	4
1. 유기공포	1.00			
2. 상실지각	.09	1.00		
3. 불안	.41*	.20**	1.00	
4. 우울	.45*	.18**	.73*	1.00

$p^*<.05, **p<.01$ (양방검증)

표 4. 불안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단계	B	β	R^2	ΔR^2	F변화량
성별	1	1.815	.141	.020	.026	4.452*
유기공포	2	2.586	.390	.181	.165	33.973***
상실지각	3	.323	.163	.202	.026	.019*

* $p<.05, *** p<.001$

3단계로 투입된 상실지각 변인은 불안증상 변량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 변화량=0.19, $p < .05$. 이혼가정 유형 중에서 편모집단과 편부집단에 따른 불안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편모집단의 경우, 성별 변인, 유기공포 변인, 상실지각 변인은 불안증상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다. 편모집단의 경우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불안 변량의 10.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변화량=7.945, $p < .05$. 즉, 편모가정의 딸이 아들에 비해서 높은 불안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불안 변량의 22.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변화량=23.348, $p < .001$. 3단계로 투입된 상실지각 변인은 불안 변량의 5.5%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 변화량=5.999, $p < .05$.

한편, 편부집단의 경우, 성별변인은 불안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불안변량의 23.5%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3단계로 투입된 상실지각은 불안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에 대한 상실지각 변인과 우울증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 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다. 상실지각변인을 2단계로 투입하였고, 유기공포 변인을 3단계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을 보면,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우울 변량의 2.8%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혼가정 자녀들이 지각하는 상실감은 우울변량의 약 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변화량

표 5. 편모, 편부 집단의 불안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 변인	편모집단(n=71)						편부집단(n=48)					
	단계	B	β	R ²	Δ R ²	F 변화량	단계	B	β	R ²	Δ R ²	F 변화량
성별	1	3.924	.310	.090	.103	7.945*	1	-.211	-.015	-.022	.000	.010
유기공포	2	3.311	.457	.313	.229	23.348***	2	2.838	.484	.201	.235	13.791***
상실지각	3	.493	.238	.360	.055	5.999*	3	.004	.002	.183	.000	.987

* $p < .05$ *** $p < .001$

표 6. 우울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단계	B	β	R ²	Δ R ²	F 변화량
성별	1	2.675	1.231	.022	.028	4.884*
상실지각	2	.403	.191	.051	.034	5.963*
유기공포	3	3.974	.636	.227	.179	39.034***

* $p < .05$, *** $p < .001$

=5.999, $p<.05$. 2단계로 투입된 상실지각 변인은 우울변량의 3.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 변화량=5.963, $p<.05$.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우울변량의 17.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 변화량=39.034, $p<.001$. 이혼가정 유형 중에서 편모집단과 편부집단에 따른 우울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7에서, 편모집단의 경우,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우울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투입된 상실지각은 우울 변량의 8.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 변화량=6.732, $p<.05$.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우울 변량의 14.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변화량=14.910, $p<.001$. 한편, 편부집단의 경우,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우울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투입된 상실지각 변인도 우울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편부 집단의 우울 변량의 26.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 변화량=16.519, $p<.001$.

논 의

본 연구는 총 170명의 이혼가정 중학생(남 84 여 86)을 대상으로 부모 이혼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증상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혼가정 유형(편모, 편부, 친모계부, 및 계모친부 집단)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우울 점수를 비교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유기공포 수준은 편부가정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우울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지각된 유기공포는 불안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상실지각과 유기공포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부모이혼에 대하여 지각하는 유기공포와 불안증상간이 관계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자녀가 부모 이혼에 대하여 지각하는 상실수준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4, 7 참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해석이 심리적 장애의 유형과 관련 있다는 Brown(1989)의 견해와 일치되며, Beck(1976), Clark, Beck과 Stewart(1990)가 제안한 내용-특수성 가설과 일부

표 7. 편모, 편부집단의 우울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인 변인	편모집단(n=71)						편부집단(n=48)					
	단계	B	β	R ²	Δ R ²	F변화량	단계	B	β	R ²	Δ R ²	F변화량
성별	1	2.944	1.837	.016	.030	2.112	1	2.666	.147	.000	.021	.979
상실 지각	2	.738	.301	.091	.087	6.732*	2	-.066	-.025	-.022	.000	.016
유기 공포	3	4.035	1.045	.245	.161	14.910***	3	3.965	.519	.240	.267	16.519***

* $p<.05$, *** $p<.001$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서증상들은 각기 독특하고 특수한 인지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혼가정 자녀들의 경우, 부모 이혼을 상실로 지각하는 정도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유기공포를 지각하는 정도는 그들의 우울 및 불안 증상과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실지각 변인이 우울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설명력이 작은 편이었다. 반면, 유기공포 변인은 불안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을 뿐 만 아니라, 우울 변량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공포 변인이 불안 및 우울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Wolchik 등(2002)의 연구에서 유기공포는 이혼스트레스 및 모자관계의 질이 내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allerstein과 Kelly(1976)는 유기공포를 이혼가정 자녀들이 부적응을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개념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붕괴되고 물리적 환경이 붕괴되면, 자녀들은 소속감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지도 모른다고 지각하는 것은 강한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기공포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및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자녀일 지라도 유기공포 수준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유

기공포가 이혼 이후 모자관계의 변화에 따른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애착안정성,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같은 변인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상실지각은 유기공포 변인에 비해서 우울 및 불안증상에 대한 설명력이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이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상실지각보다는 유기공포가 적응에 더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확대하려면, 상실지각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한 추후연구들을 통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을 4가지 유형 즉, 편모($n=71$), 편부($n=48$), 친모계부($n=25$), 계모친부($n=26$)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혼가정 유형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기공포, 상실지각, 불안 및 우울 점수를 비교하였다. 성별변인은 불안과 우울에 대하여 주효과를 나타냈다. 즉, 연령범위가 12세~15세에 해당되는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 불안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이혼가정 자녀들은 소녀가 소년에 비해 심리적으로 보다 더 취약하다는 Wallerstein과 Lewis(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이혼가정의 중학생 자녀의 경우, 이혼가정 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혼가정 유형은 유기공포 수준에 대하여 주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혼가정 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기공포 수준에 대한 사후 분석의 결과 편부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유

기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기공포는 불안과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장 높은 유기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편부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 부적응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우울 및 불안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혼가정유형별(특히 편모집단, 편부집단)로 수행하면, 분석의 결과는 전체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와는 다소 달라진다(표 5, 7 참조). 특히, 편부집단에서 불안과 우울증상에 각각에 대하여 성별변인의 설명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직 유기공포 변인만이 불안 증상과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235$, F 변화량=13.791, $p<.001$, $\Delta R^2 = .267$, F 변화량=16.519, $p<.001$. 이러한 결과는 편부집단에서 불안과 우울에 대한 일반적인 성차 보다는 지각된 유기공포가 그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Hetherington(1986)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그녀는 이혼 및 재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편모가정의 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응상의 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정의 딸의 이득보다는 오히려 편부가정의 취약성, 즉 편부 가정이 아들과 딸 모두 높은 수준의 유기공포를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애착되는 한국 가정의 특성상 어머니의 상실이 더 큰 유기공포를 경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편부가정의 자녀의 성별변인과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같은 변인을 추가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혼구(2004)는 한국의 경우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표집이 여자로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남, 여 비율과 사례수가 적절하게 통제된 방법을 통해서 도출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상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사건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과도한 상실 및 유기공포를 지각하는 것은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중의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치료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이혼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건설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성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치료적 표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치료적 효율성과 실용성을 증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유기공포 지각은 불안증상 뿐만 아니라 우울증상 변량까지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지각은 우울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작았다. 따라서 국내 이혼가정 중학생의 경우 상실지각보다는 유기공포에 대한 지각이 심리적 적응에 보다 더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상실지각과 심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이혼가정 자녀가 지각하는 유기공포 및 상실 수준이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영향뿐 만아니라, 이혼 스트레스와 다른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재혼가정이 포함되었다. 친모계부와 계모친부 집단의 사례수는 각기 25, 26 이었다. 이러한 사례수는 변량분석을 수행할 때 동분산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가정 유형간 비교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혼가정 유형에 따라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친모계부집단과 계모친부집단의 사례수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재혼가정 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재혼가정이 포함되는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혼가정 자녀들은 가정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편부집단은 다른 이혼가정 유형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유기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혼가정 유형별 자녀의 개별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들을 반영하는 다차원적 변인들을 상정하여 그 변인들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비이혼가정 자녀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불안 수준을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정연옥, 이민규, 2006)를 토대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비이혼가정 자녀들의 불안과 우울증상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수준과 관련된 측정치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신현숙, 정찬석 (2001). 이혼가정의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 청소년상담원.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47-53.
- 정연옥, 이민규 (200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4, 689-708.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56.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불안의 측정 -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검사. 신경정신의학, 29, 3, 691-701.
- 통계청 (2004). 2003년 인구동태자료. 서울: 통계청.
- 한겨레신문 (2005.6.05). "여관의 정치경제학"
- Achenbach, T. M., Dumenci, L., & Rescorla, L.

- A.(2002). Ten-year comparisons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for national samples of youth: Self,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 194-203.
- Achenbach, T. M., & Howell, C. T. (1993). Are American children's problems getting wor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145-1154.
- Atkeson, B. M., Forehand, R. L., & Rickard, K. M. (1982).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5, pp.255-281). New York: Plenum.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7, 497-529.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Brown, G., Steer, R. A., Eidelson, J. I., & Riskind, J. H. (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183.
- Blumberg, S. H., & Izard, C. E. (1986). Discriminating patterns of emotions in 10- and 11-year-old children's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52-857.
- Brady, E. U., & Kendall, P. C. (1992).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1, 244-255.
- Brown, G. W. (1989). *Life events and measurement*. In G. W. Brown & T. Harris(Eds.), *Life events and illness*(pp.3-45). New York: Guilford.
- Children's defense fund (1999).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yearbook*. Washington, DC: Children's Defense Fund.
- Cicchetti, D., & Toth, S. L. (1991).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sorders*.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 (pp.1-19). New York: Erlbaum.
- Cicchetti, D., & Toth, S. L. (1997).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rauma: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Rochester, NY: Rochester University Press.
- Clark, L. A. (1990). *The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Descriptive psychopathology and differential diagnosis*. In P. C. Kendall & D. Watson(Eds.), *Anxiety and depression: Distinctive and overlapping features*(pp. 83-13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lark, D. A., Beck, A. T., & Stewart, B. (1990). Cognitive specificity and positive-negative affectivity: Complementary or contradictory views 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148-155.
- Compas, B. E. (1995). *Promoting successful coping during adolescence*. In M. Rutter(Eds.); *Psychosocial disturbances in young people. Challenges for preven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ney, D. B., & Powell, B. (1993). Do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fare better living

- with same-sex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5-71.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Emery, R. E., & Forehand, R. (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p.64-9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lay-Jones, R., & Brown, G. W. (1981). Types of stressful life event and the onset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Medicine*, 11, 803-815
- Folkman, S., Lazarus, R. S., Gruen, R.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71-579.
- Gardner, R. A. (1976). *Psychotherapy with children of divorce*. New York: Jason Aronson.
- Haggerty, R. J., Sherrod, L.R., Garnezy, N., & Rutter, M.(Eds.) (1994).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vey, J. H. (2001). The psychological of loss as a lens to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 5, 838-853.
- Harvey, & Miller (1998). Toward a psychology of loss. *Psychological Science*, 9, 429-434.
- Her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39-56.
- Kendall, P.C., Chansky, T. E., Kane, M., Kim, R., Kortlander, E., Ronan, K., Sessa, F., & Siqueland, L. (1992). *Anxiety disorders in youth: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New York: Macmillan.
- Kurdek, L.,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5, 712-718.
- Luecken, L. J., & Applehans, B. (2005). Information - Processing Biases in Young Adults From Bereaved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2, 309-313.
- McMahon, S.,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 Ey, S. (2003). Stress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s there evidence of special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 1, 107-133.
- Palosaari, U. K., & Aro, H. M. (1995). Parental divorce, self-esteem and depression: An intimate relationship as a protective factor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5, 91-96.
- Palosaari, U. K., Aro, H. M., & Laippala (1996). Parental divorce and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Adolescents' closeness to parents and self-esteem as mediating facto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3, 20-26.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 271-280.
- Rutter, M. (1989).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

- lif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23-51.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181-2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ler, I. N., Reynolds, K. D., Kliewer, W., & Ramirez, R. (1992). Specificity of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3, 240-248.
- Select Committee on Children, Youth, Families(SCCYF)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1989). U. S.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urrnt conditions and recent trends.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imons, R. L., & Beaman, J. (1996). Father's parenting. In R. L. Simons & Associates(Eds),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ress, Interaction and child outcome*(pp. 94-103). Thousand Oaks, CA:Sage.
-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76).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Experiences of the Child In later Latenc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6, 2, 256
- Wallerstein, J. S., & Lewis, J. M. (2004).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Report of a 25-year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21, 3, 353.
- Wolchik, S. A., Tein, J., Sandler, I. N., & Doyle, K. W. (2002). Fear of Abandonmen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4, 401-418.

논문접수일: 2007년 1월 31일

게재결정일: 2007년 2월 26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ear of abandonment and loss about parental divorce stress and divorced adolescents' anxiety and depression

Yeonok Chung Min Kyu Lee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ear of abandonment and loss due to parental divorce stress and divorced adolescents' anxiety and depression was investigated. Data of 170 divorced adolescents (84 males and 86 femal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oup of adolescents with single father showed higher perceived fear of abandonment than other groups. In addition,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level of anxiety and depressio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ear of abandonment significantly predicted anxiety symptoms and the perception of loss predicted depressive sympto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divorce str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was discussed.

Keywords : divorced adolescents, fear of abandonment, perception of loss, anxiety, depression.